**SE(SCSC) 3조 제안서 수정사항**

4월 10일 진행되었던 제안서 발표에서 제기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된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당시 제기된 지적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있을지 의문이다. 친구나 외국인교류 동아리의 힘을 빌리면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까?

2. 독자생존이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마켓에 진출해 있는 다른 서비스와의 연동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조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추가하거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1. 인맥을 활용할 수 없는 처지의 외국인들에 대한 통계자료와 수요 우려에 대한 반박

(ppt slide 6, ppt slide 15~17)

2.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공식 외국인 도움 서비스로 자리잡은 1345와의 서비스 연동

(ppt slide 18~19)

먼저 첫 번째 지적은 수업을 같이 듣는 어떤 학우가 제기해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한국에 형성된 인맥 없이 입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수는 약 72만명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외국인 교환학생이나 유학생들이야 지적하신대로 각 학교에 존재하는 교류 동아리나 한국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학생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러 왔거나 잠깐 여행 차 방문한 사람들은 인맥을 통한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1345의 이용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본 서비스 메인 페이지에 1345와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십여년 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외국인 도움 기관이라는 대내외적 이미지를 쌓아온 1345와 서비스를 연동함으로서, 이용자 유입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였습니다. 전화 상담으로만 제공되는 1345의 서비스를 우리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보완하되, 상호 홍보하고 보완해주는 호혜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한 것이 이번에 수정하면서 추가된 컨셉입니다. 이는 독자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한껏 낮추는 한편, 학우 분이 제기했던 ‘수요’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한편, 학우 분이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수정 말고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보완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work flow chart 구분하여 각자 정리 (ppt slide 21~22)

2. 웹에서 진행되는 전체 서비스의 분포와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Web model 추가

(ppt slide 23)

3. 개인화에 사용될 서치/추천 알고리즘 설명 구체화 (ppt slide 27~31)

위 사항이 추가된 제안서를 토대로 다음 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